

### 목서 '템플스테이' 국민도 원한다



온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4강신화를 이뤄낸 이번 월드컵은 국가이미지 홍보에 더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전통사찰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토록 한 이른바 '템플스테이(Temple stay)'다. 월드컵기간에 33개 사찰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950여 명의 외국인들이 머물고 갔다. 참가자는 그다지 많았지만 관심과 호응은 아주 좋았으며 외국인들도 알다시피 보도했듯 정도와 정부와 불교계에서는 9-10월 아시안게임 기간중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양인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을 이 사찰체험이 왜 그들을 매료시켰을까. 단지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좋거나 불교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지구촌의 현대사라면 전통사찰에서의 생활문화체험은 신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선을 통해 자기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발우공양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도와 탁본 체험 등도 그들을 흥미롭게 하기에 충분했음을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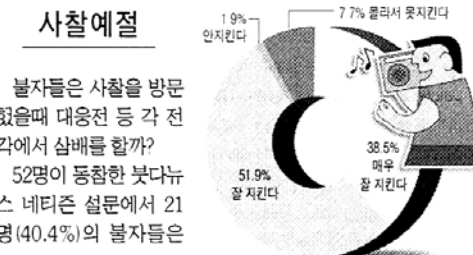
앞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템플 스테이를 통해 한국 문화와 불교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국과 불교계는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템플 스테이'는 외국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 안 된다. 불자가 아닌 내국인들이라도 산사체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주말연휴는 길어지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나려 한다. 이제 사찰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 날에 걸쳐 딱딱한 프로그램으로 점철된 하계 동계 수련회만으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한국의 산사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연다면 포교의 새 지평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국민 정서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사찰은 국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찰의 문이 자신들에게 열리게 될 바라는 그들에게 성큼 다가가야 한다.

도수(정업도량 회주·본지 논설위원)

### 불자의 생각



### "비교적 잘 지킨다" 51.9%

대중전에 서만 한다. 15명(28.8%)은 사찰의 규모나 시간 등 형편에 따라 한다. 9명(17.3%)은 일부 전각에서만 한다. 7명(13.5%)은 모든 전각에서 다 한다고 응답했다. 사찰 내에서 기본 예절을 얼마나 지킨다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는 27명(51.9%)이 비교적 잘 지킨다. 20명(38.5%)이 매우 잘 지킨다. 4명(7.7%)이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한다. 1명(1.9%)이 잘 안지킨다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연평대전(서해교전)' 이후 잠잠했던 서해 바다에서 3년만에 남북 해군 간에 교전이 다시 발생했다. 꽃게잡이 철과 대선이 다가오자 '북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교전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서해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교전은 연평해전의 연장선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여 동안 불안정하게 지속해왔던 화해협력 노력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남측에서의 월드컵 열기가 무르익고, 북미, 남북 대화가 재개될 시점에서 햇볕정책과

이라는 통치구호를 제시하고 군사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국가'인 북한에서의 패전은 최고지도자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사태다. 북한군은 '백백, 천백 보복'을 거듭 다짐하면서 훈련을 강화해 왔지만 남북간 전력격차에 따른 역부족을 절감하고 무력사용보다는 새로운 '해상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 NLL 무효화에 주력해 왔다. 이번 교전

### 항구평화 위한 근본해결책 찾아야

99년 6월에 발생한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 해군이 언젠가는 '보복'을 통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 해군의 전투력 열세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화해의 진전 등으로 보복 시기를 늦춰오다가 이번에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시대의 기본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면서 '사상·군사우선의 강성대국 건설'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NLL, 고수나 무력화나를 둘러싼 분쟁으로 불수 있다. 둘째, 서해항구어장의 영유권을 노린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고집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경제난 해결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을 통한 경제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정도로 심각한

다. 북한은 관광객 감소에 따른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유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일본의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로 무기수출, 마약 밀거래 등을 통한 외화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의 서해교전도 결국은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사활을 건 꽃게잡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북한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 것이다. 셋째, 북한 지도부의 '계획된 도발'이기보다는 북한 군부의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의 정세에 많은 정보를 가진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재개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미국 특사의 수용 의지를 밝히면서 금강산관광 수위 조절, 월드컵 한국경기 중계, 박근혜 의원을 통한 남북합의사항 이행의지 표명, 민간교류의 지속 등 대화분위기

김고월 포교사 JIS 자원봉사자(본지 인도통신원)가 각각 우즈베키스탄과 인도에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포교 및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글을 보내왔다.

를 조성해왔다. 그러나 정보가 통제된 군부입장에서는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남 경계기조를 유지하면서 서해교전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는 차원에서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도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북한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해교전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탈냉전시대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고한 냉전구조가 존재하고 냉전의 '관성(慣性)'이 남북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민간교류는 지속하면서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조속히 개최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99년의 연평해전 1년 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남북한 당국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정착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열린마당

#### 중부아시아 포교에 관심을

세계 최초로 인체수술을 한 나라, 세계 최초로 '0'을 사용했던 나라, 7~8세기까지 불교국가였던 나라. 화염경과 변화 경이 결집되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낙후된 나라. 이슬람국가로 되어있는 나라. 우즈베키스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소 생소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는 불연이 깊은 나라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 김고월 포교사

인종, 국가, 민족, 종교, 계급,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위해 행동하는데 한국과 많은 종교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힘써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기아대책기구'나 '이웃사랑회'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원조단체들은 대부분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는 단체들이다. 이것은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던 국내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독교

#### 국제구호사업 적극 나서자

나 불교NGO들에 의한 사업들이 활발한 편이다. '우리는 선우' '침어불교 재가연대' 등이 주도하는 티베트지원이나 경찰들의 네팔구호사업, JIS의 인도 천만구호사업 등이 그것이다. 종단의 규모에 비해 활발한 국제사업에 뛰어들어온 불교의 경우 많은 수의 해외교당들이 건설되면서 복지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지원사업도 활발한 편이다. 해외원조사업에 있어 한국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는 99년에 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가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성과와는 달리 아직도 각 현지 사업장

#### 김동훈 JIS자원봉사자

간의 네트워크나 정보교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지역이나 국가에 있으면서도 종교가 다르거나 사안에 교류가 없어 상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종교단체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써 세계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종교계 내의 더 많은 자원들이 나눔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업의 주체들이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타종교 단체들의 장점을 취하고 서로 도와주는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현실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 불교 정식허가...종단·신행단체 포교서둘때

우즈베키스탄은 동서양을 잇는 문화적 교교이며, 과거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이었다. 136개 민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국민의 70%가 이슬람이다. 우리 고려인들은 과거 24만명에서 독립 후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약 17만 명이 살고 있으며, 교민은 1,500여명이다. 그런데 선교사가 150여명, 가톨릭은 1곳, 불교는 2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97년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NGO의 이름으로 들어와 지하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작년에 3명이 다시 추방당했다. 불교는 정식으로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았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귀결시키

결론적으로 해외포교사를 돕자고 제안한다. 그 중에서도 중부아시아 지역이 나가 있는 해외 포교사업에 관심을 갖자. 이것은 비단 종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개인의 불자의 불교 단체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당연히 총무원의 제도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언제나 예산이 없다는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 불교는 포교만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원동력이며, 희망이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되어왔고 필요함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 열린마음·나눔 정신으로 '협력의 틀'을

계가 국제사업에 많은 역할을 부여하여 매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장기적인 세계선교전략이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반해 한국불교계의 경우는 타종교에 비해 사회복지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해외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90년대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건립이나 수탁경영 등이 많아지게 되었고 각 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재단 등을 만들어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한 활동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포교와는 상관없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재가자

간의 네트워크나 정보교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지역이나 국가에 있으면서도 종교가 다르거나 사안에 교류가 없어 상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종교단체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써 세계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종교계 내의 더 많은 자원들이 나눔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업의 주체들이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타종교 단체들의 장점을 취하고 서로 도와주는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현실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 장하다! 잘싸웠다!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 우리선수들은 수신토종오가피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상을 대표인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전사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랑스러운 우리의 젊은이들! 그대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가피 알고봤더니 '금가피' 지난 98년 아시안게임때 국가대표 11개팀 68명의 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였습니다. 최하위로 전선시즌을 마감한 중앙농구단이 우승을 차지할때도 수신토종오가피가 1년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수신토종오가피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전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활동이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차레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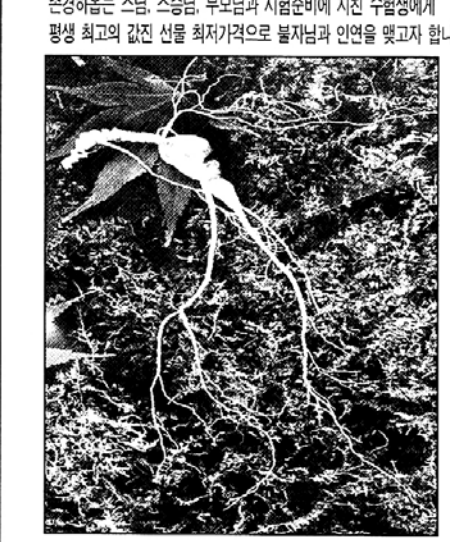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지 상봉수4기 재배한 100% 도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방지 한방지이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지 상봉수4의 사안이 인체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없던 즉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으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즉구국가대표팀이 먹고 있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주문·문의전화 (02)447-004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신경쇠약, 폐병,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기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신된다.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7가지 下藥 125가지 지로 모두 3673개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연상대로 재배한 것이면 자연산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길은 산에 뿌려 자라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이밖에 볼 적조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법도상당(자연산삼 보유)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